

대구에서 물의 향연 개최

6개국 140여 업체 참여...전시 및 학술발표 겸해



국내최대 '물의 축제'인 '2006 WATER KOREA' 행사가 지난 11월 13일부터 16일 까지 4일간 대구광역시 소재 대구전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한국상하수도협회(회장 허남식, 現 부산광역시시장)와 대구광역시가 공동 주최하고, 환경부,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가 후원하는 행사로 6개국 140개 환경관련업체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했다.

또 상·하수도 종사자들에게 비즈니스의 장을 제공하고, 한국상하수도협회, 대한상하수도학회, 한국물환경학회, 환경관리공단, 한국수자원공사 등 5개 기관에서 학술발표회, 상하수도 포럼, 업무개선사례발표회 등을 통한 기술정보 제공 및 교류를 촉진하는 한편, 전국 상·하수도인들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는 행사로 꾸며졌다.

올해로 5회째 개최되는 2006 WATER KOREA 행사는 대구, 부산, 대전, 광주에 이어 매년 지방순회로 개최되며 지방분권시대에 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상당부분 기여하고 있다.

'2006 WATER KOREA' 행사 기간 중에는 국제상하수도전시회, 세미나·학술발표회, 업무개선 우수사례발표회, 상하수도 기능경진대회, 물사진 전시회, 상하수도 시설 견학, 한마음 족구대회, 상하수도인의 밤 및 협회 총회 등이 함께 개최됐다.

국제상하수도전시회에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프랑스, 일본, 영국, 이탈리아, 독일 등 6개국(7개업체)에서 140개 친환경업체 및 서울특별시 등 7개 광역시 지자체 공동홍보관 및 한국수자원공사 등 물 관련 기관(470개 부스)이 참가하여 상·하수도 산업의 현주소와 미래를 한눈에 보여 줬다.

특히, 금년에는 '상하수도관거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 특별관'을 마련, 상·하수도산업의 신제품과 최신기술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됐다.

세미나 및 학술발표회에서는 상하수도 전문과제별로 약 400여편이 발표되어 기술, 정보, 경험 등을 교류함으로써 상·하수도분야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됐다. ◀

‘제7회 환경신기술 발표회’ 개최



한국환경기술진흥원(원장 김영화)은 지난 11월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충주호리조트에서 약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회 환경신기술발표회’ 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규용 환경부 차관, 한국환경기술진흥원 김영화 원장, 이시종 의원, 김호복 충주시장, 신동원 원주지방환경청장, 심상결 충청북도 복지환경국장 등, 환경산업체 관계자들이 다수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규용 환경부차관은 인사말을 통해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환경기술 개발에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노력하는 기업을 적극 발굴·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차관은 “21세기는 인류 규범으로 정착되고 있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국가환경의 미래상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라면서 “환경산업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이젠 환경기술 자체가 첨단산업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회에는 총 65개 기술(수질 30개, 폐기물 32개, 관거 3개), 실내전시 36개 기술(수질 18개, 폐기물 16개, 관거 2개), 실외전시 14개 기술(수질 6개, 폐기물 3개, 관거 5개)이 소개됐다.

이날 신기술 발표에는 수질분야에서 (주)성신엔지니어링의 ‘중력식 섬유여과기(GFF-Filter)를 이용한 부유물질 제거기술’, (주)거성토건과 거중종합건설(주)의 ‘미생물의 유기물 흡착을 이용한 하수의 질소·인 제거기술(NBS)’, (주)젠트로 RPS를 이용한 하·폐수 고도처리기술’,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주)의 ‘혐기조, 완충조, 호환조, 호기조로 구성된 하수처리공정에서 선형화된 모델을 이용한 회환조의 폭기/비폭기 주기의 제어기술’, 쌍용건설(주)의 ‘비포기-포기-비포기와 비포기로 운전되는 병렬형 교대 반응조와 폴리올레핀계 침지식 중공사 정밀여과막을 이용한 하수 고도처리기술’ 등이 소개됐다. ◀

